속죄할 '부지중 범죄'가 말이 되나?

(레4:1~35)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4.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8.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10.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11.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회중의 속죄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족장의 속죄하는 말씀과 평민의 속죄하는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속죄 할 '부지중 범죄가' 말이 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속죄 할 '부지중 범죄가' 말이 되나?

본문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13절에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 22절에 족장의 죄를 속죄할 때, 27절에 평민들의 죄를 속죄할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때는 전부 '부지중에'라고 하는 단어로 '부지중에 범죄 한 자'로 나옵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부지중에, 실수로, 부주의 하여"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贖罪祭)는 부지중에 어느 계명을 범하고 범한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 한 것을 용서 받을 때 속죄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안수해서 죄를 전이시킵니다. 이관시킵니다. 내 죄를 흡수하고 받아들인 그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이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십계명이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행동과 연관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시작하여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까지의 여섯 계명을 살펴볼 때 부지중에 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을 모르는데 부지중에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데 간음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남편 우리야를 죽이려는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데 살인교사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죄악들이 발전적으로 전개됩니까? 그런데 결국은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교사를 하고 남의 이웃을 탐내는 동안에 죄인 줄 모르고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죄를 저질렀을까요? 잠깐 잊어버렸습니까?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에 영적 유익을 다윗처럼 잘 아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안 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십계명을 몰라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탐내고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의로(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민15:30-31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라고 하십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라고 하는데 선민의 영역으로부터 쫓겨나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고의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부지중에 지은 죄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남북 왕국시절에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계명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도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지중에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민 됨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도대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와 고의적으로 지은 죄(고범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에 대한 절차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은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부지중에 행한 것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은 알아요. 사실인척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는 버림받았어야 합니다.

알고, 모르고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고, 뭘 알고 뭘 모른다는 것입니까?
'안다'라는 것은 십계명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십계명의 계명 중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할 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탐내는 것,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르고 짓는 죄는 성립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모르고 지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모른다는 것이 뭘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를 속죄 제사의 절차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속죄 제사는 제사장의 제사와 회중의 제사가 같은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등가(等價)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절차가 간소한데 제물의 피를 다루는데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번제 때나 화목제 때와 마찬가지로 평민이나 족장들의 속죄제는 제단 뿔들과 주위에만 뿌리는데, 회중과 제사장의 경우에는 피를 다루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제사장의 절차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만인제사장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평민에게도 사실은 제사장의 절차가 들어 있는데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평민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부분을 제사장이 대신해 주고 있었으므로 속죄제도 간략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의 속죄제의 절차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죄가 옮겨집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과 동일시가 됩니다. 제물을 죽여서 피를 들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맨 끝 쪽에 가면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바로 뒤쪽으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에 피를 일곱 번을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의 네 뿔에 피를 바르고 특이한 것은 번제단에서 번제를 불살라서 속죄제를 드릴 때 화목제와 같은 형식으로 콩팥과 기름을 화제로 드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진영 바깥에 재를 버리는 곳에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절차를 따라서 의미를 살펴보아야 고의로 지은 죄와 부지중에 지은 죄의 기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가 선민으로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면 거짓말을 행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내 입술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열매가 내 몸의 사지백체에 맺히려면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어서 일련의 연쇄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탐내고 동침하고 우리야를 죽이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떠오른 것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앞선 과정들이 연쇄적으로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속죄가 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열매를 속죄하려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 가지를 속죄하고 그 뿌리를 속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피를 뿌리고 분향단의 네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 화목제와 같은 방식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의 연쇄과정을 통해서 속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세 가지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죄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일곱 번 뿌리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범죄 하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웃의 것을 탐낸다든지 우상숭배의 모든 것들은 연쇄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고 그 열매를 속죄하려면 뿌리로부터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지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뿌려야 속죄가 되는 것으로, 내가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의 말씀하시는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짓말만 속죄하고 거짓말만 회개하면 그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빗나감의 연속과정에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 적중해서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하는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대신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간음도 살인도 마음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빗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네 뿔에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소제적 의미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몇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십계명을 범하는 죄가 나타났는데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적 삶을 살지 못하니 빗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식을 담고 있으니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저히 자식의 성적을 그대로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잘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돈을 마음에 넣고 돈을 벌고 싶은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래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거짓말을 합니다. 잘못된 상품인데 좋은 상품으로 팔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빗나갔고 분향단의 삶은 소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금의 시간이 가루가 돼야 하고 1년 뒤, 2년 뒤, 3년 전의 뭉텅이 시간이 없어져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지금뿐이고 그러므로 무한반복 번제의 삶이 소제의 삶인데 이게 중단되어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쉬지 않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돈이고, 쉬지 않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자식의 성공이고, 쉬지 않고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건강이고 외모나 미모, 명예, 학문, 공부 이런 것으로 다 바뀌어 버리는데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삶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기쁨을 왜 자식에게서 바랍니까? 빗나갔기 때문에 십계명을 범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기쁨을 돈에서 바라고 기쁨을 승진에서 바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의 동료를 짓누르기 위해서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나타나고 비방하다보니 예수님께서 '바보'라고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살인에 준하는 죄들이 나타나는데 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구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가 의미하는 것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의 떡 상을 의미합니다. 떡이라는 것이 배부름의 사건이잖아요. 배불러야 화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목제의 의미가 거기 있고 소제의 의미가 분향단에 있어요. 끊임없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이 구름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번제의 삶은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을 들여놨느냐의 문제, 결국은 계명을 범하는 이유는 번제적 삶과 소제적 삶과 화목제적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다, 모른다.'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모셔 들였는데 살다 보면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이 들어올 것 같으니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소제적 삶인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마음을 올려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기대를 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분향단의 네 뿔에 피를 바르고 화목제 형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세 군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계명이 범해졌습니다.
'모른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지만 씨가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측근들이나 비서가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가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하는 정책을 알고 그 정책을 입안할 때 경향을 보아서 그 사람의 성격과 습관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비서나 박지만 씨 같은 친척과 가족이 박근혜 씨를 알고 있는 앎에 비하면 우리

는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번제적 삶과 소제적 삶과 화목제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깊이를 몰라서 계명을 문자로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범할 때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계명을 앎으로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문자로 계명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이 들어와 있어요. 분향단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구름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돈에게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라 돈과 화목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돈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하고 배 부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박근혜 대통령을 알듯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 모른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들이 십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경우도. 또 선민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계명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인격과의 교제를 통한 앎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남녀가 '안다'라는 것은 '동침한다.'라는 뜻입니다. 남녀 간의 깊은 교제의 마지막이 동침입니다. 가장 깊은 교제의 단계가 동침의 단계로 아는 것입니다. 남녀가 동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아는 것인데 그것이 번제적 삶과 소제적 삶과 화목제적 삶이 있어야 그런 앎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알듯이 그렇게 알지를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나를 깊이 알았더라면 그 계명을 범할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모르고 범하는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민들이 바알 숭배를 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바알 숭배를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고범죄는 게 무엇이냐?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버리는 것이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으로 버리는데 이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대항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 중에서 여호와를 버리는 자가 있겠습니까만 말씀드렸듯이 어느 장로님은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고 하고 자식들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니 성경을 다 찢고 돌아가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고범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좋아 하시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는데.'라는 마음을 선민이 갖는 게 고범죄인데 고범죄가 나타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안다, 모른다.'가 뭐라고요?
죄를 속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게 된 연쇄과정의 뿌리로부터 속죄해 나가는 것을 보면 '안다, 모른다.'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리는 이유는 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나는 이익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거짓말이라는 열매는 이익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뿌리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데 돈을 집어넣었기 때문으로 뿌리로부터 속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뿌리로부터의 과정을 거쳐서 번제적 삶과 소제적 삶과 화목제적 삶이 있음으로서만 계명이 지켜질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제사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깊이 친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 부르는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번제적, 소제적, 화목제적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너무 간략하게 주셨는데 십자가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은 것이라고 믿으면 되고, 주님을 장사지냈어요. 내가 장사된 것이라고 믿으면 되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믿고,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내가 승천한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마음을 주님께 묶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마음이 하늘에 머물러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아버지와 성령을 통해 느끼시고 받아들이시고 교제하시듯이 그렇게 내 마음도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과 똑같이 교제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번제적, 소제적, 화목제적 삶이 충족되면서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범하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되어서 계명이 다 지켜지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 아는 앎이 없으니 문자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도 자꾸 우리의 입술과 손끝에서 발끝에서 범죄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안다, 모른다.'의 기준이 이렇게 속죄제의 피 뿌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가 수미산처럼 쌓였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속죄해 주시되 이제부터 마음의 지성소인 뿌리로부터 속죄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앎으로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마음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내가 좋아함으로 전달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